

Place of Change _Collectif Etc

After winning a competi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Urban Planning Agency of Saint-Étienne (France), the Collectif Etc designed a public square of 670m² and built it with the inhabitants in a participative process in July 2011.

At the intersection of two streets, the site was formerly a wasteland. Answering the on-going urban changes in the neighborhood, the project simulates a first step of the process in which a building is designed and built. The idea is to represent the plan of imaginary housings on the ground and their section on the wall. That way, people can imagine living in the future buildings and get an idea of the impact of the real one that should be built in a couple of years.

For a whole month, three types of workshops have been set up and were fully open to anyone, every day from 9 am to 8 pm:

- A carpentry workshop to build all the urban furniture;
- A graphic design workshop to give life to the imaginary housings and to the surroundings;

- A landscape and gardening workshop to establish the green space and shared garden in the middle of the site.

The construction site was open to the public and people could exchange and learn from each other. The Collectif Etc provided everyone with tools, safety gears and advice. Local associations, artists and musicians were invited to organize various activities such as wall paintings, concerts, circus workshops, open air movies, sports tournaments, tango lessons, special meals, debates... An online blog got set up and showcased the everyday life of the construction site.

The works are now over. A water tank is available and local people had the initia-



tive to keep taking care of the garden themselves and organize regular events. The furniture is not damaged, the place is well maintained and the inhabitants decided to name it "Place of the Giant" after the large painting made by artists Ella&Pitr. It is now an important element in the neighborhood, a place that neighbors identify to.





변화하는 광장

프랑스 생테티엔 시의 한 구역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주변 구역이 개발되자 이곳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시의 공공도시계획위원회가 공모전을 개최했고, 콜렉티브 Etc의 설계안이 당선되어 면적 670m²의 광장이 만들어졌다.

광장에는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주택이 들어섰다. 대지를 평면도처럼 나누고, 광장 옆 건물의 벽에 단면도를 그림으로 그려넣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2년 후에 들어설 건물을 상상할 수 있으며, 실제 지어질 때 상상했던 생각이 반영될 수도 있다.

세 종류의 작업장을 세워 한 달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목공예 작업장에서는 가구를 만들고, 그래픽 디자인 작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 주택과 주변에 상상력을 불러넣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조경 및 원예 작업장에서는 대지 중앙에 정원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광장을 만들어 나갔다. 지역단체, 미술가, 음악가 등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었다. 벽화를 그리고, 콘서트와 서커스를 열었으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운동경기를 하고 탱고를 알려주기도 했으며, 간식을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러한 현장의 모든 상황은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가구들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화가 엘라 앤 피트리리는 벽에 커다란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광장을 '거인의 공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공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Project: Place au Changement
Architects: Collectif Etc
Client: Établissement Public d'Aménagement de Saint-Étienne
Location: Saint-Étienne, France
Site area: 670m²
Completion: 2011.7

